

01 교회소식

영원한 보화를 찾아서

국내외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믿음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04 간증

“우리의 이름은 만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키우며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넘치는 국내외 만민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724호 2016년 2월 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시편 1:1-3)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66권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주야로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삶을 대입하며 응답과 축복의 공식을 터득해간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사진은 번호순으로 기 프리덤 성도, 에스더 완지루 집사, 서중수 집사, 이은실 집사, 수레쉬 넥타 형제, 강현미 권사).

성경 안에서 치유와 변화, 축복을 체험하다

축복의 새해, 말씀의 능력을 붙든 만민 성도들

빛이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성경 안에는 영생의 길은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와 무한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올해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 영의 흐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3도약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성경'에 집중하고 있다. 벌써부터 성경 통독을 통한 은혜의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다.

빛과소금선교회 이은실 집사(44, 사진 4)는 “성경을 정독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를 읽으며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잘못했다 해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싸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이로 인해 육의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니 섬기지 못하고 교만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여 통회 자복하였지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음의 치유와 회개의 역사를 통해 신앙생활

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인도 텔리만민교회 수레쉬 넥타 형제(30, 사진5)는 꿈속에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으세요.”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는데, 일독을 마친 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신장 결석을 치료받았다. 현재 그는 교회에서 힌디어 통·번역을 담당하며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한편, 교회 내 여러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도제물연합회 강현미 권사(50, 사진6)는 “성경 곳곳에서 영의 공간과 재창조의 권능 등 만민의 사역과 동일한 역사들을 발견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는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지요.”라고 말했다. 특히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무릎

관절 통증이 치료되었다고 한다.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 통독을 통해 치료와 응답의 축복까지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만민교회 서중수 집사(56, 사진3)는 성경 통독과 필사를 통해 눈의 통증이 사라짐은 물론 직장에서 승진하는 축복과 자녀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으며,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에스더 완지루 집사(55, 사진2)는 마음 다해 성경을 읽던 중 눈의 통증과 가려움증, 눈물이 자주 나던 증세뿐 아니라 척추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당뇨병을 치료받은 벨기에 예노만민교회 기 프리덤 성도(63, 사진1)는 하루 일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매일 읽고 묵상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 성경 말씀을 떠올

리며 승리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 밖에도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읽고 매일 성구를 암송하는 흐름은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금주의 성경구절’을 게재하여 하루에 한 구절 이상씩 암송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01년부터 말씀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성도들은 올해에도 열릴 제16회 대회를 목표로 말씀 암송에 힘쓰고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요 1:1),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천이 꼭 지녀야 하는 무기 즉 성령의 검(엡 6:17)이다.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며 그분의 형상을 되찾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마음 안에 말씀을 품어야 한다. 2016년에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여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되기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주님을 믿는다는 것

님께서 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 역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감추어 두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해 사망의 길로 갈 것을 아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고전 2:6~8).

2. 구세주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신 이유를 마음 중심에서 깨우쳐야 합니다. 예컨대, 나라마다 법이 있어 그 질서가 유지되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어서 누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토지 무리기 법칙을 근거로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했습니다. 아담이 넘겨준 권세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습니다. 즉 사망이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 왔으니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1:14)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죄를 대속하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예는 구세주의 조건에 해당치 않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마 1:18). 그러니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며 죄가 없으십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때에 그것을 무르려면 부요하여 무를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레 25:26~27).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빛을 갠 줄 수 없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범죄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므로 타고난 원죄는 물론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악한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며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앞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형이 아무리 대부호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빛더미에 앉은 동생을 도와주지 않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으셨기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곧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 “...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

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3.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로 변화되는 것

이러한 십자가의 섭리를 바로 알고 마음 중심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요 14:23).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고 진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즉 신앙생활의 기초인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락을 즐기는가 하면 아예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십일조가 아까워 일부만 드리거나 아예 드리지 않지요.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니(말 3:8) 어찌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탄식하지요.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명까지 내주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헐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악한 말을 내던 입술이 선한 입술로, 불평하던 모습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악을 버리고 진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마음을 닦아가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믿음으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며 늘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1. 만세 전 예비하신 인간 구원의 길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결코 사람과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더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권능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7: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8: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믿음과 사랑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호받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위기가 오히려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현오 집사 (47세, 동광주만민교회)



예전에 저는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일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실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던 중, 영혼이 잘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준비하였지요.

2007년, 공업사를 인수해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좇으며 정도를 견고자 힘썼더니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단골이 늘어나 십일조가 붙어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 초, 갑작스러운 원정업체의 부도로 인해 저희 공업사까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평온함이 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이시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2014년 1월에 천여 평이 넘는 자동차 공업사를 인수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협력해 선을 이루 주셨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은 물론 직원들을 배려하고자 노력하니 2015년에는 광주시 시장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받는 행복한 일도 있었지요. 영육 간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국에 가면 행복해요”

비엔 후옹 릴루 성도 (45세, 프랑스)



저는 만민중앙교회의 성도가 된 이후로 참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2014년 6월, 한국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악수를 한 뒤 중이염과 습진, 치주염을 치료받았지요. 8월에 열리는 하계수련회에서는 5년 동안 고통받던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부터 양쪽 귀말이 부어오르더니 두피 전체가 가렵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두피가 온통 부스럼으로 하얗게 덮였고, 군데군데에 빨갛게 딱지가 입히고 피가 났으며, 심지어 귀말까지 변했지요. 지루성 피부염이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질병을 순식간에 치료받은 체험을 했기에 저는 다시금 하계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면서 4개월간 매일 한끼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사모하던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차 한국에 갔습니다. 앞서 당회장님을 뵈고 악수를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두피 가려움증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환자기도를 받은 뒤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귀말까지 후끈거렸지요. 이후 부스럼으로 하얗게 덮여있던 머리와 귀말의 피부염이 점차 호전되더니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프랑스에서 변함없이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간 자살 테러의 위험에서 보호받고 어딜 가나 형통합니다”

케이비 라이 성도 (36세, 네팔만민교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최고 절정에 다다랐던 2007년, 저는 수도 카불 시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업무상 매일 오전 10시에 들르는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산하 국제안보지원군 사무실에 웬지 오후에 가고 싶어서 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륵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자살 테러 차량이 사무실이 있는 건물 정문을 공격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많은 군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 시간, 그 곳에 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은 네팔만민교회에 다니는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지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이듬해 고국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네팔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팔 정부의 주선으로 한국에 일자리를 얻어 2014년 5월부터 경남 함천에서 일하고 있는데, 2015년 2월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악수한 후 즉시 월급이 인상되었고 4월에는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을 하루 만에 재발급 받는 등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당회장님과 악수한 뒤 월급이 또 올라 작년 한 해 동안 월급이 70% 가까이 오르는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로 직업을 삼아 감사함으로 일했을 뿐인데, 사장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넘치는 축복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p>FEBRUARY</p> <p>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2.7~2.13</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민음의 분량 9-13 공부 잘하는 비결 9-11 요한계시록 강해 14-19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4-5 안식일을 기록히 지키라 1-3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과 영 1-5 (이수진 목사) 영의 세계 34 (이화선 목사) 옴기 강해 13 (신동초 목사) 열재앙 23 (정구영 목사) 위로부터 난 지혜 3 (김수정 목사) 변함없는 사랑 (천우진 전도사) 선물 (김창민 교육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8)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1 내 마음의 찬양 26 창조와 과학 21 모두 드려요 43 즐거운 요리 7 옛날 옛적에 8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연합대성회 2 민음으로 걸어온 길 28 회상 [시즌2] 10 	<p>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p>
---	---	---	--	--	---------------------------------------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특별 승진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전중익 장로 (53세, 경남 거창경찰서 근무)



제가 승진의 문턱에서 떨어져 아쉬워할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영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데...”라며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을 할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12월, 주님의 은혜로 영의 마음을 이룬 후에는 제가 가는 부서마다 좋은 업무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선과 사랑으로 매사에 임하니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동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도맡아 해결할 수 있었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있었지요. 동료들도 팀장인 저를 잘 따라주어 팀이 하나 되어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에 신속출동, 친절할 언행, 공정한 사건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안업무성과제도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자랑스러운 현장경찰우수팀장’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 경감으로 특별승진하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17년 전, 조계사 시위진압 도중 사다리차에서 15미터 아래로 추락했으나 지켜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이 잘되니 범사에 잘되는 축복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공부하니 매우 즐겁습니다”

문석준 형제 (20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합격)



다섯 살 때 저는 폐렴으로 열이 42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기도받은 뒤 치료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2006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낯선 미국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지요. 4년 후에는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진학해 8학년부터(중2)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어드리는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었지요. 또한 2013년에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후 기도생활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니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정치, 경제, 과학,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통해 지식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결국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하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만민의 외교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 자인 TV를 통해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를 시청하던 중 치료받은 이모의 전도로 저희 가족은 첸나이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 뒤 작은 아빠는 13년간 고통받던 악한 영에서 놓임받았고, 외할머니는 난산으로 죽어가던 암소에게 무안단물(출 15:25)을 뿌려 살리는 신기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갑자기 제 목이 부어 오르고 음식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은 편도선염이라며 경과를 지켜본 뒤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결심하고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지요. 응답받기 위해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도 시작했어요.

2015년 5월, 저는 교회 근처 이모 집에서 함께



“힌두교도였던 저희 가족이 주님을 만나 온갖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빠빠따 자매 (14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내며 각종 예배는 물론 다니엘철야를 작성하여 기도하면서 타밀어판 『십자가의 도』 책자를 마음 다해 읽었어요. 엄마도 21일간 아침 금식을 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2015년 11월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해 뜨거워지더니 누르고 피가 섞인 가래 덩어리들을 뱉어낸 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날 작은 아빠는 심한 다리 통증을, 외할머니는 허리 통증을, 남동생은 선천성 고낭 기형을 치료받았지요.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치료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 사진 : 힌두교도였던 빠빠따 가족은 주님을 영접한 후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모, 할머니, 빠빠따, 엄마, 남동생, 언니).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아산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팽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8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화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